

정보화사회 이해 돕는 종합안내서

박준식 외 지음 「뉴미디어와 도서관」

80년대 중반이후 우리 주변에서는 몇가지의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그 흐름 중의 하나로 정보화사회의 전진, 즉 정보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실례로 정보화와 관련된 연구 조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정보화의 실태조사보고서와 정보화 추진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행했고, 국가적인 정보유통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국가기관전산망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보문화의 올바른 발전방향과 그 확산을 위한 시도가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및 학술단체 등에서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국내·외에서 기존의 정보매체 보다 정보처리, 교환, 전달, 축적 등의 종합적인 역할 수행이 우수한 정보매체라 할 수 있는 뉴미디어들의 개발 및 보급의 급진전으로 정보화사회가 인류에게 꿈과 행복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욱 부풀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속에서 근간에 출간된 박준식, 김정현 교수의 「뉴미디어와 도서관」은 작금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동시에 이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길잡이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책은 저자들이 그간 발표한 수편의 논문들에 일련의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다시 보완한 것으로, 오늘날 고도화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되고 있는 뉴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이 뉴미디어들의 도서관활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두 10장으로 구성된 「뉴미디어와 도서관」의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제1장에서는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에 관한 일반론을, 그리고 제2장부터 제9장까지는 마이크로컴퓨터, 비디오텍스, 전자출판, 전자도서관, CD-ROM, 전자식문헌전송시스템, 다운로드, 팩시밀리 등 뉴미디어의 각 유형별 개요와 적용 및 전망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10장에서는 기타 뉴미디어로 전자우편, CATV, DTP, LAN의 이용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이 책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뉴미디어를 빠짐없이 심도있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적용분야와 실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효율적인 정보이용능력증대에 유익할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뉴미디어란 단순히 매체 그 자체의 물리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하드웨어 이외에도 매체이용기술로서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회

적 이용행태인 서비스 등의 종합적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뉴미디어와 도서관」은 이들의 연관성을 적절히 조명하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밝히고 있다. 물론 이 책의 출간 이전에도 뉴미디어를 소개한 저작들이 몇몇 있었으나 이들은 주로 기술개발에 따른 뉴미디어의 동향 및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소개하고 있을 뿐 「뉴미디어와 도서관」처럼 도서관업무에 직접 뉴미디어를 활용시키고 있는 사례나 전망에 관한 변변한 연구서적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은 뉴미디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제도서관업무의 적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동시에 이 뉴미디어들의 전망까지도 잊지 않고 기술하는 등 미래지향적 시각까지 제시하고 있어, 근래의 도서관업무 전산화를 위한 인식과 요구의 확산속에서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관리기관의 실무종사자들을 위한 업무지침서로서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의 이론과 실재를 익히려는 전공학생들의 학습교재로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역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뉴미디어와 도서관」은 오늘날 제3의 인쇄혁명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전자출판과 전자도서관의 최근 양상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컴퓨터디스크잡지가 국내에서도 첫선을 보이고 있고, CD-ROM을 이용한 전자책 및 전자사전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현재의 국내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으며, 기록보존과 활용면에서도 우수하여 아마도 첨단 정보산업의 한 영역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분야의 이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이 책은 매장마다 관련주체의 국내외 참고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어 독자들이 보다 많은 문헌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가 있는가 하면, 풍부한 도표를 첨부하여 내용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책 역시 구성 및 내용상 몇가지 아쉬운 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구성상 저자가 급급적 여러 유형의 뉴미디어들을 폭 넓게 기술하다 보니 뉴미디어를 단순나열형으로 제시하고 있어 다소 산만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소목차의 체계에서도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도서관업무 적용에 있어 시기별이나 우선순위별 혹은 분야별 비중도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순서와 용어표기를 유지하였으면 아마도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더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내용상 근래에 들어 주

요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컴퓨터통신, 특히 PC통신의 개념 및 방법 등을 비롯해 고도정보화시스템구축의 근간이 될 종합정보통신망(ISDN) 등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적 경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정보기술의 급속한 개발로 뉴미디어의 발전속도와 적용범위의 확대 그리고 멀티미디어 컴퓨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산업의 꽃으로 불리우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확장에 따른 서비스의 다변화 등 새로운 진전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아직 시도단계에 있는 뉴미디어의 도서관업무 활용에 커다란 자극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배영환

경북대 도서관학과 강사

「우리시대의 사랑」

조성기의 이야기꾼으로서의 재주는 가히 환상적이다. 소설속에 담긴 문제의식이나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스토리 자체에만 몰두하게 한다. 부연해서 조성기 문학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울림 없는 이야기의 문학'이라고나 할까.

신학, 법학, 역사학에 대한 그의 박학다식함, '여자'에 대한 그의 끈질기고 예민한 촉각, 천부적인 이야기꾼으로서의 재주, 모든 장엄한 것·무거운 것·의미있는 것에 대한 그의 본능적 거부감. 그러저러한 조성기의 잡식성 특징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시대의 사랑」일 듯.

조성기의 사랑론을 펼치면서, 혹 엄숙하고 정숙한 그 어떤 것을 기대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책을 다 덮은 지금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스스로 언급했듯 그는 엄숙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을 통해 우리 시대의 사랑의 논리를 분석해 보려 한 듯하다. 이 소설은 마치 우리 시대의 사랑이라는 엄숙한 주제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작가가 꿈꿨고 고민해 봤다기 보다는, 어느 한단면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그려 놓고 독자들의 반응을 즐기려는 작가의 농후한 시비결기의 한 실례인 듯 싶다.

조성기의 문학 속에서 어떤 알맹이들을 추출해 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한다면 아마 그의 포착에 초점을 맞춰야 할 듯하다. 이념이 횡행하고 개인이 부각되고 저마다 자기라는 작은 우물 안에서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하

는 요즘을 '노출증'이라는 한마디 안에 포착해내고 더구나 성적인 노출증 환자와 연결시켜 육체적인 노출증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정신적인 병폐를 진단해내는 그의 소설 끌어가는 매우 적절하다. 이야기 전개 방식, 주제와 연결된 잡화들의 배열 상태, 도입 부분의 문체, 잔상을 주는 마지막 처리 등 연작들 중에서 '노출하려는 경향에 대하여'는 과연 탁월하다.

가려지고 막히고 답답한 인간관계라는 부분에서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성과 관련된 습성들을 끌어내는 작가의 인간 존재에 대한 야유는, 그가 소설 속에서 보여주듯 이념에 대한, 소설 쓰는 자기 작업에 대한, 엄숙하고 무거운 것들에 대한 그의 외로움의 표현이 아닐까.

아직은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풍운의 꿈을 안고 있는 나로서는 작가의 야유와 빈정거림이 전적으로 접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 사랑의 주소 없음에 대한 허탈감은 함께 쓸어안을 수밖에 없었다.

김혜영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 2동 74-22

「악이란 무엇인가?」

악이 인간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종교적으로는 인간이 자연적 재앙이나 불가사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흔히 악한 무엇이 인간생활의 간섭을 통해 이런 자연적 재앙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물론 이러한 종교적 신념에서 기인된 악의 이해가 인간의 유한성 및 그에 상응한 불완전함에 정초하고 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현대문명에 힘입어 과거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자연적 재앙 또는 자연적 악에 대한 미신적 탈을 벗길 수 있음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며, 또 인간이성의 승리처럼 여겨진다.

그렇다면, 현대 물질문명은 이렇듯 악을 없앨 수 있는 요술방망이일까? 분명히 자연적 악의 제거로는 악의 본질적 규명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저지러 수 있는 도덕적 악과 어떤 구조적 부조리에서 나올 수 있는 악한 행위들이 늘 인간 주위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행위에서 기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도덕적 악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악의

문제를 보다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악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악이란 무엇인가?」(정해창 엮음, 도서출판 창)를 읽으면서, 악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새삼 느낀다. 악이 인간생활에 항상 상존하고 있는 근원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갖는 악에 대한 이해가 과거 무당의 굿이나 단순한 주술로 인간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옛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인간이든 인간은 그 나름대로 세계를 보는 시각을 지닌다. 흔히 세계관이라 명칭되는 이 시각이 그 시대, 그 상황에 따른 가치체계의 산물이라면 단순히 마르크스적 명제를 반복하는 것일까? 물론 그 용어의 정확한 인용을 배제하고 이해할 경우, 악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도 다름아닌 세계관 또는 상이한 가치체계의 차이임이 드러난다. 예컨대, '에피쿠로스 딜레마'라 불리는 악의 기원에 관한 철학적 논변이 전지전능한 유일신을 가정하는 서구기독교 문명에 치명적인 논변인 반면, 악의 편재성을 강조하는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하등 문제될 것 없는 탁상공론의 주체처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조적 부조리에서 나올 수 있는 악의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악의 문제가 단순히 이론적 해석이 아닌 '현실적 악'의 제거라는 실천적 과제라는 점 때문이다.

안치숙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주공APT. 1002-101

「물질과 의식」

정신의 본질에 관한 탐구는 현대 영미철학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중의 하나이다. 물론 논의의 활발성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정신 또는 마음의 탐구가 매우 최근에 시작된 철학적 활동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마음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토의는 그 기원상 매우 오래된 물음중의 하나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적 저술중에 「영혼론」은 우리 마음의 본질 및 그 기능을 체계적으로 저술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학문전통이 중세 신학자들로 이어져 커다란 맥을 형성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마

음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구분에서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어떤 것으로 해석하며 마음은 불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점에서 고대·중세의 마음에 관한 토의가 서양 기독교사상과 밀접히 연관돼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마음의 문제가 현대철학에서 유독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을까? 많은 현대 철학자들은 그들 논의의 시조로 데카르트를 손꼽는다. 몸과 마음의 실체적 이원론과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론을 주장한 데카르트의 경우, 많은 그의 논변이 고·중세의 철학관의 거부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 당시 새롭게 이론적 무장을 한 뉴턴물리학의 등장은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와 유사하게 폴 처치랜드의 「물질과 의식」(석봉래 옮김, 서광사) 또한 심신문제를 보는 또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초보적 입문서 형식으로 쓴 그의 저술에서 현대 영미심리철학의 특색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현대 자연과학 때문인지 대부분 반이원론적 주장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상태를 물리적 상태로 환원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현대 심리철학의 전반적 추세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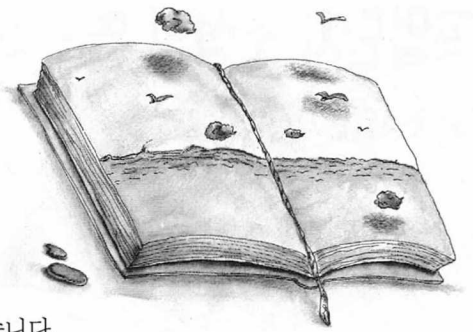
더군다나 현대 심리철학에서 폴 처치랜드의 입장은 매우 과격하면서도 자연주의적이다. 심리상태가 물리적 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신경과학의 탐구를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탐구함으로써 마음의 신비적 탈도 서서히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인 것 같다. 이런 자연과학적 신봉은 바로 콰인이 주장한 '자연주의적 인식론'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저자의 논의의 특색은 제거적 유물론이 시사하는 과학관이다. 세부적으로는 동일론자의 '이론간의 환원'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되었지만, 저자가 보는 전과학과 현과학간의 관계는 불연속적 점이라고 인식한다. 예컨대 이러한 과학관이 과학관의 변화가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라고 본 토마스 쿤의 논변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나영옥

서울 동대문구 령2동 580번지

독서를 취미라고 말하지 맙시다



취미가 뭐냐는 물음에, 독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글썄요, 책 읽는 일이 취미라…….

언뜻 생각하기엔 상당히 고상한 취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책 읽는 일을 감히 취미 정도로 여기다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책은, 역사의 대변인이자 우리 앞날을 밝혀주는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책은, 인생을 되돌려 놓기도 합니다. 또 책은, ……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책은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그렇다면 스승 읽는 일을 취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독서를 취미라고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지난 여섯 해 동안 책 만드는 일을 해온 바른글방과 미필적고의 식구들은 이제 책 만들기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글방>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출판기획상담 • 단행본·잡지 등 기획출판 대행 • 운문·교열·교정 대행 • 본문편집
- 단행본·아동물·참고서 등 전산조판 입·출력

▶<바른글방>에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 완전편집 가능한 KCE 편집입력기 SUPER WRITER 15대 • 300LP 1대
- ECRM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출·판·전·문·집·단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9
한샘빌딩 3층
전화 325-5366 (대)
325-5363-5
325-6484-5
팩시 325-5362

디자인실의 몽당연필!

짧지만, 그 끝은 언제나 예리합니다

2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이제 5명의 디자이너가
9개월째 표지·책의
얼굴만을 꾸미고 있습니다.



옛그제 산 연필이 벌써
몽당연필이 되어 버렸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스케치로
디자인실에는 제모양의
연필 보기가 힘이 듭니다.
'몽당연필' 비록 짧지만,
그 끝은 언제나 날카로운 감각으로 짊어 있습니다.

디·자·인·전·문·집·단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9 한샘빌딩 3층
전화/325-5366 (대)
팩시/325-5362